이상재의 시민사회 사상에 관한 연구

배도환*

Ⅰ. 들어가면서
Ⅱ.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정리
Ⅲ. 박정양 비서 시절에 싹트는 시민사회 의식
Ⅳ.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드러나는 시민사회의 꿈
Ⅴ. YMCA를 통하여 확대되는 시민사회의 삶
Ⅶ. 나가면서

Ⅰ. 들어가면서

1927년 4월 7일 사상 초유의 '사회장'이 치러졌고, 장례 행렬에는 20만의 인파들이 모여 들었다.[1] 월남 이상재의 장례식이었다. 동아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 ... 시내에 잇는 각 야소교회교 조선사람과 서양인 동교역자 남녀들을 비롯하야 사회유지 삼백여명이 모히어 ... 장의행렬의 집합장소인 경운동천도교회 구내에는 ... 사방으로부터 모혀드는 사람들은 물밋듯하야 ... 입추의 여디가 업시되였는데 ... 좌우로는 경호위원들의 호위와 ... 시내 각 학교 남녀 학생 팔백여명이 도렬을 하야 ... 구름가치 모혀드는 사회 유지들로 ...[2]

---

* 숭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1) 『조선일보』, 1927년 4월 7일

왜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고, 사회 유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던 것일까?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언론매체들이 왜 연일 이상재 관련 소식을 중요한 기사로 다루었을까?[3] 그가 누구였기에 그러한 관심을 가진 것인가?

매켄지에 의하면 이상재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신념과 칭송'을 듣는 자였고[4],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자'로 인정받고 '보편적인 존경'을 받는 자였다.[5] 그는 정부의 고위 관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업가도 아니었다. 삼일운동 33인에 들지도 않았고, 총을 들고 매국노를 처벌하던 열사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상재를 주목하고 존경했던 것인가? 심지어 독립 운동가를 잡으러 다녔던 일본경찰 조차도 그를 존경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6]

이상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독립협회와 YMCA 활동과 연결하여 '독립운동', '사회사상', '교육가'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와 평가로 앞의 물음에 답하기에는 부족하다. 많은 독립운동가, 사회사상가, 교육가들이 있었지만, 이상재만큼 다양한 계층,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상재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생각의 바탕과 행동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글에서는 그것을 '시민사회건설'에서 찾는다.[7] 시민사회의

---

2) 『동아일보』, 1927년 4월 8일

3) 동아일보 1927년 3월 31일자는 이상재를 '민중의 선구 사회의 원로'라고 소개하고 있고, 동신문에서 윤치호는 '선생의 서거는 됴선의 큰 손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4) F.A.매켄지, 신복룡 역, 『한국의 독립운동』(서울: 집문당, 1999), 71쪽.

5) 윗글, 210쪽.

6) "교활하고 악독하여 한국 사람을 잡아넣는 데는 악귀 같은 유명한 일본 형사 '미와(三論)'조차도 월남에게만은 아버지, 아버지하며 허리를 굽신 거렸다.", 전택부, 『이상재평전』(서울: 범우사, 1985), 220쪽.

7)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신은 구한말 민족주의 운동의 한 흐름인 근대시민사회의 도래를 예감하고 준비하고자 했던 실력양성론에 기댄 계몽과 갱생운동, 이를테면 최초의 '엔지오

정신의 바탕에서 시민사회의 꿈을 꾸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 여기에서 이 글의 목적과 의의가 나온다. 먼저 '시민사회건설'이라는 주제야말로 이상재의 삶과 사상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회의 대안으로 이상재의 삶과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계층, 부류, 이념을 넘어서 범 세계 시민사회까지를 지향하는 이상재의 사상을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살펴볼 것이다.

II.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정리

먼저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 한다. 그런데 시민사회를 보는 관점, 즉 시민사회의 성격이나 위상, 이론적 쟁점들은 다양하다. 특히 쟁점 중 중심문제는 '시민'의 개념이다. 정치적인 대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보는 견해, 시민을 부르주아로 보는 견해, 국가와 지배 계급 또는 힘과 윤리로 제압하는 위치가 아닌 모든 계급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하다.[8] 예를 들어, 이혁배는 시민사회를 '일상적인 소비 및 여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자 정치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장'으로 규정한 유팔무의 견해를 표준으로 따른다.[9] 이러한 정의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그룹'의 태동과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학계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재를 근대시민사회건설의 앞섬이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은 여기에서 통찰을 얻었음을 밝혀둔다. 박정신, 「한국지성사에서 읽은 이상재-실학의 막내에서 근대시민사회건설의 앞섬이로-」, 조기홍, 『월남(月南) 이상재의 사상과 활동연구』(서울: 서울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 · 한산이씨진사공종중, 2006), 1-18쪽, 특히 3쪽.

8) 유팔무, 「시민사회의 개념과 내부구성: 유물론적 형성론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통권 제56호, (2003년 4월), 112-139쪽, 특히 115-116쪽.

9) 이혁배, 「시민신학의 기본구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31호, (2004년), 261-280쪽, 특히 263쪽.

'지위나 신분'에 무게를 두거나, '기능'에 무게를 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박영신은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에 무게를 두고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 시민의 삶이란 자기 이익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시민은 개인 차원의 봉사활동에 머물지 않고 국가 수준에서 이웃 일반을 보살펴 주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도도한 국가와 시장과 마주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민된 모습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가 시민사회인 것이다.[10]

본 글에서 말하는 '시민사회'는 '생활공간이자 정치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장'이라는 유팔무의 개념에 '자기 이익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이라는 설명을 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이상재를 바라보아, 그가 꿈꾸고 살며 체험한 그의 사상과 삶의 모습이 시민사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Ⅲ. 박정양 비서 시절에 싹트는 시민사회 의식

이상재는 18세가 되던 해에 효심의 발로로 가난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과거에 응시했다.[11] 하지만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들어 세도가의 자제가 아니면 뇌물을 써야 급제가 되는 형편이었다. 그는 실망하고 낙향하려

10) 박영신, 「종교와 시민 사회」, 조 성돈, 정 재영,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서울: 예영, 2008), 11-39쪽, 특히 36쪽.

11) 이상재의 집안은 가난하였다. 그가 14세 되던 해 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와 "네 덕분에 우리 집안도 좀 잘 살아보자."고 말을 하시면서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이상재는 아버지 대시 옥살이를 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과거에 응시하였던 그의 마음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전택부, 윗글, 14-15쪽.

다가 친척 이장직(李長稙)을 통해 죽천(竹泉) 박정양(朴定陽)[12] 승지의 비서로 들어갔다. 이 때 비서는 식객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주인의 심부름이나 하는 직책이었다. 그래서 전택부는 이 시기의 이상재를 바보스러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정신이 홍이섭의 글을 인용하면서 주장한 것처럼,[13] 이때의 경험이 후의 이상재를 만들어갔던 중요한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1881년 그가 32세가 되던 해 정부는 60여명의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조직하여 일본을 시찰케 했다. 이 때 박정양은 이상재를 수행원으로 함께 데려갔다. 또한 38세가 되던 1887년, 박정양이 주미 공사로 갈 때에도 이상재는 박정양과 함께 갔다. 만약 전택부의 말대로 13년의 세월을 단순히 '얼빠진'[14]사람으로 지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중차대한 일에 함께 데려갈 만큼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재는 비서 직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 식객들 중에는 우국지사도 있었고, 건달도 있었고, 협잡꾼, 사기꾼 별별 잡배들이 많았고,[15] 박정양의 벼슬과 그의 개혁성향에 맞는 손님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며, 그런 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13년의 비서시절을 통해 그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과 사귀면서 특정 계급이나 계층만을 대변하는 편협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다.[16] 이것은 개인 또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시민사회의 정신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

12) 박정양은 이상재보다 9년 위였고, 승지라는 벼슬은 임금의 대변인 같은 자리로, 정3품(正三品)의 벼슬이다. 한편 한산이씨가 박정양의 외가이기도 하다. 윗글, 19쪽.
13) 박정신, 윗글, 4-5쪽.
14) 전택부, 윗글, 25쪽.
15) 윗글, 20쪽.
16) 실제로 이상재는 후에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Ⅳ.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드러나는 시민사회의 꿈

'독립협회'를 말할 때 서재필, 윤치호를 떠올리면서도, 이상재를 연관시키는 자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상재는 1896년 고종의 허락으로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조직했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 했었다. 독립협회가 주도한 만민공동회나 토론회가 열릴 때 마다 사회를 도맡아 한 자 역시 '이상재'였다. 또한, 창설 당시 많았던 정부 고위층 관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1898년 8월 28일 윤치호가 회장에, 이상재가 부회장이 되면서 독립협회는 보다 더 민중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이상재는 독립협회가 서울 중심의 엘리트 조직을 탈피하고 민중운동이 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일조를 했다. 이 해에 독립협회는 전국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고[17], 회원 수 4천 여 명의 시민의 대표단체가 되었다. 그래서 호암(湖岩) 문일평(文一平)은 그의 저서 『한미 50년사』에서, "독립협회는 3거두가 있으니 서재필, 윤치호 및 이상재다. 서씨는 창시자라고 한다면, 윤씨는 계승자요, 이씨는 확충자다."고 하게 된다.

1898년 3월 10일 독립협회는 1만 여명의 민중을 동원하며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때의 모습을 매켄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재필의 회고록에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역사상 정부가 민주주의의 힘을 최초로 체감한 것은 러시아가 한국에 많은 군인들을 투입하여 한국 군대를 훈련시켰을 때였다. 이 문제가 독립협회의 토론 주제가 되어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찬반으로 심각하게 논의되었을 때, ... 정부에게 이와 같은 정책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로 결의했다. 그 다음 날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은

17) 이상재와 지석영의 요청으로 첫 번째 지회인 '공주지회'가 설립되었다.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ctics in Kore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127쪽.

> 대궐문 앞에 모여 ... 계획을 철회하라고 황제에게 청원했다. ... 그들은 계약이 철회될 때 까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왕궁으로부터의 철수를 거부했다. ... 러시아 공사는 한국 정부에 매우 협박적인 편지를 보내어, ... 드디어 한국 정부는 러시아 공사에게 그들의 장교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고 계약의 취소로 인한 손해를 변상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국민의 의지는 승리를 거두었다.[18]

특히 이상재가 주로 활동한 만민공동회는 근대 시민운동의 첫출발이었다. 즉 시민운동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이상재가 1898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을 보면 '시민'의 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19]

>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등(臣等)은 생각하기에 나라가 나라꼴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립해서 딴 나라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닦아서 정법을 한 나라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천(上天)이 우리 폐하에게 주신 하나의 큰 권리이니 이 권리가 없으면 그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회를 만드는 것은 위로 황상의 지위를 높이고 아래로 인민의 뜻을 굳혀서 억만년 끝없는 기초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20]

이상재는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 하나는 '왕'이요, 또 하나는 '인민'이라는 것이다. 비록 조선이 기울어져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왕정국가 체제하에서, 왕의 힘에 견주어 '인민'의 힘을 강조했다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1898년 10월 29일에는 박정양, 민영환 등 현직, 전직 대신들과, 각 사회

---

18) F.A. 매켄지, 윗글, 66쪽.

19) 이 상소문은 이상재가 1898년 2월 21일 이건호의 도움으로 작성한 것으로 독립협회 회원 135명이 서명했다. 정교, 『大韓李年史』上卷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57), 173-175쪽, 김명구, 「월남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2003년), 30쪽에서 재인용.

20) 이상재, 「獨立門建設疏(독립문건설소)」, 월남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원회 편, 『월남이상재연구』(서울: 路出版, 1986), 274-276쪽, 특히 275쪽. 원문(한문)을 번역해 놓은 것을 옮겼다.

단체와 일반시민, 학생 등 1만 여 명이 모여, 연설과 토론을 통해 정부에 올릴 '헌의육조(獻議六條)'를 채택하였다. 이 집회의 사회자는 이상재였는데, 회장 윤치호의 열변에 이어 백정출신인 박성춘이 등단하여 연설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정양의 비서시절부터 이상재가 꿈꾸어왔던 시민사회는 특정 지위나 신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 이상재는 만민공동회를 대표하여 시민의 힘을 역설한 다음의 상소문을 올린다.

> 오늘날 우리나라 조정 형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안하다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위태롭다고 해야 옳겠습니까? ... 서양 공법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니 권리와 의무가 없는 사람은 단순한 물건이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국가의 대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국왕이 이것을 모아서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정부 여러분은 고대 성인이 가르치신 바 민유방본(民惟邦本)이라고 하신 말씀은 문방도구(文房道具)처럼 여기고, 그 본지는 실지로 탐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 국권을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이냐 하면 황권을 존중히 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황권을 어떻게 해야 존중하게 되느냐고 하면 정부에서 각각 그 직권과 책임을 완수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니, 정부의 권력은 민중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21]

민중으로부터 국가권력이 나온다는 사상을 피력한 것으로 시민사회를 향한 그의 생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황제는 헌의6조를 제가하였고, 조칙5조(詔勅五條)를 반포하여 정치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물결은 11월 4일 수구세력에 의해 막혀버렸다.[22]

---

21) 이상재, 「上政府書(二)」, 월남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원회 편, 윗글, 287-288쪽. 이 글은 이상재가 만민공동회를 대표하여 정부에 보낸 서한인데, 이것이 정부에 이르자 즉시 체포되고 수감되었다.

22) 수구세력은 고종을 충동하여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을 붕괴시키고 수구적인 조병식 내각을

V. YMCA를 통하여 확대되는 시민사회의 삶

이상재는 두 번째 감옥살이를 통해 기독교와 만났다.[23] 그리고 시민사회를 향한 그의 소망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상재는 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지덕체를 강조하면서 1905년 YMCA 교육부위원장, 1906년 유도부 창설 등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조선의 상류층을 위한 기관으로 YMCA를 창설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상재는 YMCA를 계급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양반 관료층들이 꺼려했던 실업교육을 보다 강조하였다. 시민사회 정신이 기독교 신앙과 만나면서 '정치'위주의 활동에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상재는 '인간을 만들면서 사회를 재형성하는 교육'[24]추구했던 것이다. 이른바 시민사회 건설의 원대한 꿈의 실행이다.

이상재의 시민사회 정신은 '도덕'정신으로 연결되는데, 1922년 동아일보에 나왔던 글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 당시 동아일보는 "신생(新生)을 추구(追求)하는 조선인, 현하(現下) 급무(急務)는 과연(果然)하(何)한가"

세웠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코자 한다는 모략문서를 유포한 익명서사건을 일으켜 이상재를 비롯하여 17명을 체포하였다. 윤치호와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여 6일 만에 전원 석방되었지만, 12월 25일 11개조의 민회금압령(民會禁壓令)에 의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은 막을 내린다.

23) 이상재가 기독교를 만나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다. 박정양을 따라 미국에 갔을 때부터 '인간'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눈여겨보았었고, 독립협회를 통하여 기독교를 보았다. 물론, 독립협회가 기독교 단체가 되지 못하게 막은 자 역시 이상재였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Ⅰ』(서울: 기독교문사, 1989), 264쪽. 그러나 그가 기독교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면, 감옥에서의 환상 체험이 있었다하더라도 54세의 나이에 회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환상 중에 질책을 받고 성경을 읽고 개종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윗글, 265쪽.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상재를 연구할 때 나누는 방식, 기독교 신앙이전, 이후의 틀을 따르지 않았고, 또 여기에서는 '기독교 신앙'과의 만남으로 표현했다.

24) 이신행, 「청년운동가 월남 이상재」, 월남 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원회, 『月南 李商在 硏究』(서울: 路出版, 1986), 72-107쪽, 특히 76쪽.

라는 주제로 12명의 글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서 윤치호는 '경제력'을 강조하는 반면, 이상재는 '도덕'을 강조했다.

> 무엇보다도 상공업을 발뎐식히어야 하겟슴니다. 세상 만사가 돈 업시 되는 일이 업고, 먼저 육체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도덕도 법률도 직힐수업스니 상공업을 진흥식히어 실력을 길너야 하겟슴니다. 무엇이니 무엇이니 경륜과 배포가 잇스되 결국 되지못하는 것은 돈이 업서 안되는 것이니 우리는 하다못해 어린아해 작란감이라도 만드러 돈을 버러야하겟소. 녜날 성인중 공자나 예수나 석가가튼 어른들이 물질을 그리 중대시하지 아니하얏지마는 그것은 초월한 개인에 대한 일이요 사회나 국가로는 경제력이 아니고는 될수업스니다. 조선인은 종래 실업을 천시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엿스니 어서 적은것이라도 상관말고 상공업을 진흥식혀야 하겟습니다.[25]

> 무엇보다도 도덕심을 양성하여야 하겟소. 조선인은 과거의 도덕과 정치가 부패한 ㅅㅏ닭에 싀긔와 질투심이 만하 똑 제 일흠이 나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고 피차 싀긔 무함으로 일을 삼으니 먼저 종교를 미더 도덕심을 길어야 할터인대 다른 사람은 엇덜는지 모르지마는 내 생각에는 긔독교를 미더 제몸 희생하는 주의를 배워야하겟소 예수는 남을 위하야 자긔 목숨을 밧쳣스니 그것을 배워서 싀긔심을 업세야 하겟고. 남들은 경제상 곤난이 제일 위급하다 하지마는 내 생각에는 마음만 잘 먹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줄을 아오.[26]

이상재가 '물질중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실업교육을 강화, 사농공상을 타파 등을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가 보다 중요하게 혹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도덕'이었다. 이 때 그의 나이 73세. 조선 후기 개항 때부터 갑신정변, 동학, 청일전쟁, 을미사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러일전쟁, 한일합병, 1907대부흥, 삼일운동 등 가장 혼란하던 시기에 온

25) 윤치호, 「物質重視」, 『동아일보』, 1922년 4월 1일자, 5면.
26) 이상재, 「道德의 建設」, 『동아일보』, 1922년 4월 1일자, 5면.

몸으로 그 모든 일을 체험했던 그가 고령의 나이에 주장한 사상이며, 그의 생애에 일관되게 흘러오다가 기독교신앙으로 더욱 확대되고 분명해진 시민사회 정신의 구현이다.

이것은 『동광』에서 춘원 이광수 이상재에 대해 말한 것에도 나타난다.

> 翁이 기독교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지금붙어 25년이나 전이라고 하거니와 그때에 翁의 계급 사람으로 50이나 넘은 이가 기독교인이 되기는 여간한 자각과 결심과 용기가 아니라고는 못할 일이다. 용기는 옹의 德 중에 가장 주목할 덕이라고 믿는다. ... 옳다고 믿는 바를 감행하는 용기, 이것은 지극히 어렵은 것이니만콤 지극히 귀한 것이다. ... 용기와 아울러 翁의 德 중에 중요한 것은 그의 강한 신념이다. 신앙 없는 傍人의 눈으로 보면 치(痴)라고 할만하게 翁은 신앙의 人이다. 다만 神에게 대한 신앙뿐이 아니요. 모든 義에 대한 신앙이다. ... 그럼으로 翁은 조선의 장래에 대하여서도 비관하지 아니한다. 전능의 신은 義人의 신인 것을 믿는 때문에 그는 모든 의롭은 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낙관을 가진다.[27]

민중들이 도덕의 힘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이상재는 보았다. 나라를 구하는 길은 시민의 힘이요, 시민의 힘은 도덕의 힘이며, 도덕은 신앙에서 나온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 시민 사상'을 그는 많은 연설을 통해 청년들에게 설파하였다.

> 남을 해치지 말아라. 아무쪼록 남을 도와주고, 널러 네, 네가 어려운 일이 있더래도 참고, 남은, 남으게 해룬 노릇은 말라고 상은 가정에서 부텀 가르쳐 논 까닭에 차차 차차 자라나서 자라날수록 그 마음이 자

27) 이광수, 「現代의 奇人 李商在翁, 勇氣와 信念과 希望의 인생활자체(人生活自體)가 위대한 事業(人物印象記 其一)」, 『동광』, 제7호, 1926. 11. 1

> 라나 가주구서, 필경에서 장성해 살지라도 그 맘에 변허지 않는 그런 도덕심이 있어. 그건 하늘이 당초에 품부해준 그 도덕심이며 ...[28]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고 세계를 향한 범 세계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이상재의 원대한 꿈을 바라볼 수 있다.

이상재의 도덕시민사상은 세계 평화와도 이어진다. 그의 죽음 후 윤치호는『삼천리』에서 그의 평화에 대한 사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선생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잇는 생전의 所論 1節을 초기하건대 ... 기일건(其一件)이란 何인고 즉 和平이니 일방국(一邦國)이나 일가정(一家庭)이나 일사회(一社會)나 和平이 업고는 그 결과가 파멸하고 말 뿐이니 馬太 12장 25절에 잇는 말슴을 記憶할 일이라"[29]

개인의 이기와 나라와 민족의 이기를 넘어 도덕과 평화의 세상을 지향함이 이상재의 시민사회의 원대한 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재의 일본에 대한 생각, 민족과 독립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사분오열되어 있던 사회를 향한 연설을 살펴보자.

> 각기 민족이 아니면 어찌 사회가 조직되며 사회를 무시하면 어찌 민족이 혼자 설 수 있겠는가? 민족을 사랑하는 양심이 충일한 연후에야 가시 사회가 보급될 것이며 사회까지 널리 사랑하는 진성(眞誠)이 있으면 민족은 자연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어늘, 만일 자기 민

---

28) 배연형,「자료 : 월남이상재와 백범김구의 육성 유성 기음반」,『한국음반학』, 제 5권(1995년). 343-358쪽, 특히 344쪽. 이상재 선생의 이 연설 음반은 1926년 11월 21일에 녹음되었으나, 1927년 7월에서야 발매가 되었다. '각 디방에 허터져 잇는 청년을 일일이 순방하며 훈사를 할 수 업서 교양상의 필요한 훈사를 녹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9) 윤치호,「宗教 李商在氏와 孫秉熙氏, 榮光의 朝鮮先驅者들!!」,『삼천리』제2호(1929년 9월 1일) 마12:25 ..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 족만 주장하고 다른 민족을 돌보지 않아 시강(恃强)하여 남을 억압하든지 투쟁하여 약탈하든지 하면 이는 하느님의 일시동인(日視同人)하는 은혜를 무시하고 진리를 죄되게 함이오. ...[30]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것은 일제가 조선의 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평화와 도덕의 적이었기에 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일제와 조선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상이다. 그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범세계 시민의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Ⅵ. 꼬리말

이상재는 이생을 떠나기 한 달 전, 신간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 이념적,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반목하던 여러 이념, 여러 정치 단체, 특히 민족주의 운동 계열과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분열과 반목을 넘어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신간회의 결성이었다. 그러하기에 신간회의 회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진영에서 거부되지 않는, 그리고 여러 진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31] 이상재는 시민사회의 꿈을 꾸면서 시민의 삶을 살았다. 그는 나아가 옛 것을 던져버리고 깨어난 엘리트와 깨어난 민중이 함께 미래사회를, 시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둘 사이를 이어주고자 했다.[32] 시민으로 살면서 시민사회를 지향했던 이상재였기에 사상과

---

30) 이상재, 「청년이여」, 월남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원회, 윗글, 243-251쪽, 특히 247쪽.

31) 박정신, 「한국지성사에서 읽은 이상재-실학의 막내에서 근대시민사회건설의 앞섬이로-」, 조기홍, 윗글, 15쪽.

32) 윗글, 18쪽. 또한 이상재가 YMCA에 있을 때 그의 밑에 있던 청년부 간사 박희도는 청년학생을 비밀리에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하여 삼일운동에 가담하였다. Chung-shin Park, 윗글, 137쪽.

신분과 지위와 나이와 성별을 무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학계에서 한국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안창호계와 이승만계의 주도권 대립이라는 구도로 진행되어 왔고, 또 일본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저항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33] 이상재도 이 구도 속에서 어느 한 곳에 포함시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상재는 이러한 구분을 초월한다. 이신행이 '그를 점진론자나 혁명가 또는 자치론(自治論)과 독립론(獨立論)의 양분법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하나의 근본론자(根本論者)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의 평생을 건 운동정신, ... 해외망명을 통한 민족운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에 대한 현장(現場)의식(意識)을 운동의 기본정신으로 한 점, 그리고 평생을 지속해 온 정치·사회적 변화지향성'[34] 등을 들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공감이 간다.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줄을 세우고 편협된 사고와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비단 학문세계의 일만은 아니다. 오늘 이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래서 박정신은 '숱한 사상과 이론이 범람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고 한 세기 전의 우리 민족의 담론을 오늘의 우리가 그대로 떠안고 21세기에 들어서고 있다'[35]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나와 다르면 이단아로 몰아가거나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중요하게여기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역사의 거울, 이상재가 앞서가며 노력했던 시민사회 건설의 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안겨준다.

---

33) 김명구, 윗글, 3쪽.
34) 이신행, 윗글, 75쪽.
35) 박정신, 「실력양성론-이념적 학대를 넘어서」, 『한국 기독교사 인식』(서울: 혜안, 2004), 95-124쪽, 특히, 122쪽.

〈국문 초록〉

시민사회의 건설의 선구자 이상재

당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재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상재의 생각의 바탕과 행동의 지향점에 있었다.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시민사회건설'이다.

그는 어릴 적 박정양의 비서로 있으면서,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과 사귀면서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였다. 그는 서재필, 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 창립에 동참하였고, 만민공동회를 통해 시민사회 구현의 활동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통해 인민의 힘을 강조하고, 민중으로부터 국가권력이 나온다는 사상을 피력하였다.

이후 시민사회를 향한 그의 소망은 기독교 신앙과 만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YMCA에서 일을 할 때, 그는 YMCA를 계급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중들이 도덕의 힘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이상재는 보았다. 즉 나라를 구하는 길은 시민의 힘이요, 시민의 힘은 도덕의 힘이며, 도덕은 신앙에서 나온다고 보았던 것이다.

인생 말년의 연설에는 개인과 민족을 넘어서고 세계를 향한 범 세계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이상재의 원대한 정신이 나타난다. 이상재의 도덕시민사상은 세계 평화와도 이어진다.

핵심단어: 이상재, 시민사회, 도덕시민사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Abstract〉

A Pioneer of the Construction of the Civil Society, Sangjae Lee

Lee Sangjae has been respected and followed by people now as well as from those times. The reason is that there has been a directive point for the base of his thought and action. If it may be summed up for one word: "the Construction of the Civil Society"

While he worked as a secretary when he was young, he had a chance to meet various people who were in different social positions and classes, which could train him to think differently and make him to have various thoughts. He had participated in the foundation of Independence Association with Seo Jaepil and Yoon Chiho, while he had worked to embody the civil society through the Whole Nation Communal Society. He emphasized the power of people through his address and expressed his idea that the power of nation came from people.

When he was engaged in YMCA, he made YMCA where people could work not with standing their classes or social status. If people had a moral power, they protected the justice of the God. As God is righteous, the righteousness inevitably brought the final victory: that was what he saw. That is to say, he saw that the way to save the country was in the civil power, the civil power was the moral one, and

the morality came from the faith.

His address which gave in his later days showed Lee Sangjae's great mind which stood beyond individual and nation and going to pan-world civil society towards world. His moral civil idea also is linked to world peace.

Key words: Lee Sangjae, Civil Society, moral civil idea, Independence Association, the Whole Nation Communal Society

〈참고문헌〉

단행본

박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 서울: 혜안, 2004.

월남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원회 편, 『월남이상재연구』, 서울: 路出版, 1986

유영렬, 『한국 근대사의 탐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_____, 『애국계몽운동 Ⅰ』, 서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전택부, 『이상재평전』, 서울: 범우사, 1985.

조기홍, 『월남(月南) 이상재의 사상과 활동연구』, 서울: 서울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 · 한산이씨진사공종중, 200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Ⅰ』, 서울: 기독교문사, 1989.

논문

김명구, 「월남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 2003년.

박영신, 「종교와 시민 사회」, 조 성돈, 정 재영,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서울: 예영, 2008, 11-39쪽

박정신, 「한국지성사에서 읽은 이상재-실학의 막내에서 근대시민사회건설의 앞섬이로-」, 조기홍,『월남(月南) 이상재의 사상과 활동연구』, 서울: 서울YMCA, 월남시민문화 연구소·한산이씨진사공종중, 2006), 1-18쪽.

배연형, 「자료 : 월남이상재와 백범김구의 육성 유성 기음반」, 『한국음반학』, 제 5권(1995), 343-358쪽.

유팔무, 「시민사회의 개념과 내부구성 : 유물론적 형성론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통권 제56호(2003), 112-139쪽.

윤치호, 「宗敎 李商在氏와 孫秉熙氏, 榮光의 朝鮮先驅者들!! 」, 『삼천리』, 제2호(1929).

이신행, 「청년운동가 월남 이상재」,월남 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원회, 『月南 李商在研究 』, 서울: 路出版, 1986.

이광수, 「現代의 奇人 李商在翁, 勇氣와 信念과 希望의 人生活自體가 偉大한 事業(人物印象記 其一)」, 『동광』, 제7호(1926)

이혁배, 「시민신학의 기본구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31호(2004), 261-280쪽.

신문

『조선일보』, 1927년 4월 7일.

『동아일보』, 1922년 4월 1일, 1927년 4월 8일.

번역서

F. A. 매켄지, 신복룡 역, 『한국의 독립운동』, 서울: 집문당, 1999.

영문 단행본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ctics in Kore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